

#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

## Genre Oriented Characteristics of Virtual Reality Programs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Sook-Yeong Hong(Paris2@hansei.ac.kr)

###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화방송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 1부에 방송되었던 '우리 결혼했어요'의 텍스트를 1회부터 8회까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프로그램은 가상 부부 생활의 영상과 스튜디오에 등장하는 현실에 존재하는 연예인의 현재성을 병치시킴으로써 가상과 현실을 혼용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부류의 부부유형을 설정하여, 미션을 통해 각 유형의 연예인 커플들이 실제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랑과 갈등을 보여줌으로써 결혼에 대한 환상과 현실감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면서 수용자와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한편 공적 공간인 텔레비전에서 출연자들이 사적 감정을 고백함으로써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해체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물질이나 노력, 제스처, 언어 등 배우자에게 선사하는 크고 작은 감동을 통해 수용자들은 대리만족을 느끼며 즐거움을 고취시켜 오락성을 실현하였다.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는 진실성, 허구성, 오락성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장르적 특성은 경계의 해체와 장르적 모호함을 토대로 수용자에게 소구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 | 장르 | 진실성 | 허구성 | 오락성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t clarifying what the genre oriented characteristics of virtual reality programs are. For this, the tests of 'We Are Married' being broadcasted in 'Sunday, Sunday Night' Part 1 of MBC from episode 1 to 8.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program was mixing together virtuality and reality by placing the image of virtual couple's life and presentness of entertainers existing in reality appearing at the studio. Also, it was forming sympathy with users as it satisfies fantasy and sense of reality toward marriage by the entertainer couples showing love and conflict that may happen between real couples after setting various categories of couple types. Also, through the device for the public space to confess private feelings through television, it shows the boundary between public domain and private domain breaking up. Along with this, it has implemented amusement characteristics by inspiring enjoyment of users by a substituted satisfaction through various forms of impressions presented to spouse such as materials, effort, gesture or language, etc. Accordingly, the virtual reality program shows authenticity, fiction and amusement by being mixed together and we can see that such genre oriented characteristics act as important strategy appealing to users based on breakup of boundary and genre oriented ambiguity.

■ keyword : | Virtual Reality Program | Genre | Authenticity | Fiction | Amusement |

## I. 서론

매체가 다양해지고 각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송사마다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비슷한 포맷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예인들의 가상 짝짓기를 보여주는 형식의 프로그램들은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는데, 본격적으로 가상과 리얼리티의 혼종 장르로 선보인 것은 문화방송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우리 결혼했어요(연출: 전성호)'가 시효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결혼했어요'는 2008년 2월 6일 설날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이후 2008년 3월부터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코너로 방송되었으며, 2008년 6월 1일부터 '일요일 일요일 밤에' 1부에 독립 편성되어 방송되고 있다. 연예인들의 가상 부부 생활을 보여주는 MBC의 '우리 결혼했어요'가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증가하였다.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SBS는 2008년 7월 한 달 동안 총 3편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방영하였다. 2008년 7월 7일 방영된 '살아봅시다'는 남녀 스타가 일반인 가정의 사위와 며느리가 돼 가풍을 익히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고, 2008년 7월 14일 '스타! 러브 추리 버라이어티'는 한 남자 연예인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자 연예인에게 진짜 사랑고백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7월 21일 방송된 '절친노트'는 갈등 관계에 있거나 서로 소원한 연예인들을 친한 친구로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적 임무를 부여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형식이었다. 또한 케이블채널인 MBC에브리원은 2008년 7월 22일 '가족이 필요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서로 잘 모르는 연예인들이 가족구성원으로 생활하는 내용을 소재로 하였다[1].

'우리 결혼했어요'는 2주에 한번 촬영을 진행하며 1회 촬영시 20시간씩 촬영하고, 10대의 카메라를 배치하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연출하고 있다[2].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구성에 의한 것은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출연자들이 만들어내는 리얼한 모습들이라고 한다[3].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쟁이나 도전, 생존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출연자에게는 개인의 방송출연과 대중적 주목이라는 성취감을 부여한다. 한편 시청자들은 보통 사람의 평범하거나 특별한 일상을 지켜보는 데서 오는 관음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평범한 개인이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데서 오는 대리만족도 경험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관심의 대상이다. 연예인들의 도전과 체험을 위주로 한 '1박 2일'이나 연예인 간의 짝짓기 프로그램, 연예인의 가족체험 등 한국의 연예인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스타의 보통 면모를 보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즉, 평범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스타가 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반인 출연의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달리 스타가 출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평범하지 않은 연예인이 출연하여 평범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스타의 인간미'를 간접 경험하도록 해 준다. 시청자들은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화려하고 특별해 보이는 연예인들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보거나 자다가 일어난 모습, 화나거나 싸우거나 우는 모습 등 숨기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출연하는 연예인들 역시 최대한 리얼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에게 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소구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거나 기존 이미지에 긍정적인 요소를 보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리얼리티에 '가상'이라는 요소를 추가한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우리 결혼했어요'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장르적 특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수용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II.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 장르의 혼종성

## 1.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장르

박주연은 장르는 관습적인 안정성과 새로운 시도가 적절히 혼합되었을 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대중적으로 너무 익숙한 내용에 치우치면 지루해지고, 너무 새우면 과격한 낯설 때문에 대중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으므로 친숙함과 참신함의 양극단에서 적절히 자리 매김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제공해야 하는 TV로서, 기존의 장르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참신한 요소들을 도입하는 것은 TV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4].

조스트는 장르가 "수용자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도구"이며, "우리가 보는 것을 동일시(identifier)"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을 해석(interpréter)하기 위해 수용자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뉴스나 시리즈물, 게임 등과 같은 프로그램 등급으로 이끄는 그 순간부터 장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5]. 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장르에 속한다고 할 때 수용자는 장르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달리하게 된다. 수용자는 장르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코미디 장르에 대해서는 오락과 재미와 웃음을, 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함과 새로움, 정확함과 분석 등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를 지닌다.

김훈순과 김은정은 장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장르가 생산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장르는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탈역사적으로 정체된 고정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장르는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담아내면서 변화한다고 하였는데, 장르에 대한 '친숙함'이라는 현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변화를 통해 진부함을 탈피한 '새로움'을 자아내는 긴장 속에서 장르가 진화한다고 하였다[6]. 주창윤도 장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수용자의 욕구, 내재적 발전, 시대적 역할 등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장르 관습들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지만, 장르의 누적과 혁신의 과정은 변화를 초래한다면서 장르의 부침이나 관습의 변화는 역사적 산물이기는 하지

만, 직접적으로 사회현실을 반영하기보다 매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7].

'우리 결혼했어요'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익숙한 장르에 속하면서도 '가상'이라는 요소를 통해 변화를 주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 장르의 변용을 시도하고 있다. 범람하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장르에 대한 식상함을 최소화하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대중적 인기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장르를 적절히 변화시킨 것이다. 가상리얼리티 쇼인 '우리 결혼했어요'는 쇼, 다큐멘터리, 토크쇼, 멜로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을 모두 차용하여 '가상'이 부여하는 판타지와 허구, '리얼리티'가 허용하는 현실성과 진실성을 동시에 수용하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뿐 아니라 가상과 현실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있다.

레이시는 예술작품이 작가와 독자, 텍스트 그 자체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과 달리 미디어장르는 미디어 제도(institution), 독자(audience),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였다[8]. 가상리얼리티 쇼의 경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시사·교양 장르에 속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오락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제도적 시도와 리얼리티에서 오락성을 추구하려는 독자의 요구,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려는 미디어 텍스트적 실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2. 가상과 실재의 혼용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설정한 뒤 사실적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시뮬라크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놓은 인공물"을 의미한다. 이는 "홍내널 대상이 없는 이미지이며, 이 원본 없는 이미지가 그 자체로서 현실을 대체하고, 현실은 이 이미지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므로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된다[9].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는 결혼이라는 시뮬라크르가 출연자들의 현실을 지배하며, 출연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결혼을 연출하게 된다.

보드리야르는 거짓과 진실이 섞여버리고 가짜와 진짜가 섞여버리는 포스트 모던적 특징 속에서 가상과 실

재는 그 차이가 없어지고 개인의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의 구분도 없어진다고 보았다[9].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이러한 포스트 모던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텔레비전 장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출연자 스스로도 어디까지 연출이고 어디까지 자신의 사적 영역인지 혼돈을 느낀다.

‘우리 결혼했어요’는 사랑과 결혼을 다룬다는 점에서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출연하는 연예인 커플의 부부생활은 다양한 결혼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로맨스와 갈등을 적절히 가미하여 재미를 더해준다. 이들은 가상의 결혼생활을 연기하면서 환상과 위기를 설정하여 극적 상황을 연출한다. 이와 같은 설정에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우리 결혼했어요’는 다큐멘터리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거친 화면과 편집,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것 같은 애정표현과 실수, 고백 등은 “조작과 변형의 흔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결혼했어요’는 “재연 ‘과정’의 진실성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성을 구성”한다[4].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장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지와 지식을 가지고 안정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프로그램과 시청자 간에 일종의 ‘장르적 협약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홍석경은 이를 리얼리티 프로그램 장르에서 픽션물의 현실효과 극대화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허구적 요소를 이용하여 그럴듯해 보이는 현실의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픽션물의 재료의 현실성을 강조함으로써 진정성을 획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홍석경은 “감동실화, 위기상황, 범죄사건” 등을 소재로 하는 “리얼리티 영화, 사실성 드라마(factual drama), 뉴스 픽션, 실화 드라마, 픽션, 다큐드라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10].

리엘은 프랑스 텔레비전들이 미국 프로그램의 콘셉트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토크쇼와 리얼리티 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그는 많은 오락 프로그램들이 드라마틱하고 스펙터클한 연출을 통해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며 마치 직접 경험한 것 같은 감정(le sentiment du vécu)을 주는 일상생활의 경험(expériences de vie quotidienne) 장면을

늘림으로써 실재(réalité)와 허구(fiction)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1].

‘우리 결혼했어요’에 등장하는 연예인 커플의 가상 결혼생활에 대해 초창기 시청자들은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궁금해 하기도 하였다. 시청자들은 출연한 연예인들이 실제로 사귀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며,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다정함이나 가부장적인 모습이 본 모습인지에 알고 싶어 한다. 이 프로그램은 2주에 5차례, 한 커플당 한 번에 15~20시간씩 촬영하면서 가능한 출연진들이 스태프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코너를 담당하는 전송호 피디는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나도 출연자도 헷갈린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12].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가상과 실제의 경계가 모호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장르에 대한 수용자의 기대에 부응하며 장르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 III. 분석대상 및 방법

#### 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방송에서 매주 일요일 5시 10분부터 약 70분가량 방송되고 있는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1부 코너 ‘우리 결혼했어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 결혼했어요’가 처음 시작한 2008년 3월16일 1회 방송분부터 8회(2008년5월4일)까지를 분석하였다. 첫 회부터 8회까지는 네 커플이 고정적으로 출연하여 결혼생활을 연출하였으나 9회부터는 출연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같은 기간 출연한 가상 부부의 결혼 생활의 리얼리티를 통해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스튜디오에 세 명의 진행자와 네 쌍의 커플이 출연하여 가상 커플의 결혼 생활을 촬영한 화면을 함께 관람하며 토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네 쌍의 커플에게는 결혼생활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주어지며, 이 과정에서 가상 부부들은 최대한 실제감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한다. 결혼생활의 현실

과 판타지를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 연예인을 등장시켜 제작된 '우리 결혼했어요'는 방영초기 시청률 20%에 육박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본래의 의도는 상실한 채 상업주의, 스타 인맥 동원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비판을 받다가 시청률까지 하락하자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실제 연인 관계에 있는 한 커플을 가상 커플에 합류시켰으며 출연자들에게 조언을 주고 입담도 좋은 캐스터를 발탁하였다. '우리 결혼했어요'는 8월 15일부터 '일요일 일요일밤에'에서 분리되어 토요일 오후 5시 15분에 독립 편성되었다.

## 2. 분석방법

조스트(F. Jost)는 장르의 구분요소로 진실성(authentifiant), 허구성(fictif), 오락성(ludique)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진실성과 허구성은 상반된 개념으로 진실성은 사실적인 담화를 담고 있으며 허구성은 꾸며낸 내레이션을 담고 있다.

조스트에 의하면 진실성이란 TV프로그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나 다큐멘터리, 리포터타주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서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의 비교를 토대로 판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전쟁과 같은 사건은 특파원이 현장에서 보내온 정보에 의해 진실로 규명되는 것이다. 허구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의 유사성을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허구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의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창조된 세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통일성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오락성은 진실성과 허구성의 특징을 모두 지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담론이나 특성을 담아냄과 동시에 비현실성, 과장, 허풍, 불가능성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퀴즈쇼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진실성을 지니지만, 퀴즈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퀴즈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예스나 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나 주어진 횟수 안에 답을 말해야 하는 것과 같은 규칙을 준수하는 일

이다. 퀴즈, 버라이어티 쇼, 광고 등 재미있는 요소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웃게 만드는 장르를 포함한다[5].

조스트는 또 텔레비전 분석에 있어서 약속을 판별(identification des promesses)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락, 생방송, 게임 등과 같은 장르적 약속을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동시에 프로그램 자체의 약속을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인터넷 사이트, 관련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 의도, 타깃, 제작진을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약속의 종류를 분석하기 위해 리얼리티 쇼와 같이 판별이 어려운 장르의 약속을 찾아내는 한편 잘 포장된 미적 약속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5].

본 연구는 조스트가 제시한 장르분석의 세 가지 요소인 진실성(authentifiant), 허구성(fictif), 오락성(ludique)을 중심으로 '우리 결혼했어요'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어떠한 장르적 특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시청자에게 소구하는 장치로 사용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연예인 부부가 등장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담화(discourse)를 분석하는 한편 주요 등장인물의 특성과 유형별 부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시보기를 반복하여 시청하면서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 IV. 프로그램 분석결과

### 1. 보여지기(être vu)와 보기(voir)의 혼종을 통한 탈경계화

김미라는 바르트가 제시한 '핵심(nuclei)'과 '촉매(catalyzer)'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특징은 전체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치밀하게 구성된 '핵심', 즉 구조화된 플롯(the structures plot)보다는 출연자들이 도전과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나 해프닝 중심의 발생적 플롯(the organic plot)에 해당하는 '촉매'요소가 오히려 근간을 이루며

끊임없이 재미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리얼 버라이어티 쇼는 잘 짜인 대본에 의해 진행되는 시트콤과도 차별화되며 일종의 미대본 이벤트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13].

‘우리 결혼했어요’ 역시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는 출연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미대본 이벤트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다. 매주 일요일 저녁 5시 10분에 방송되는 ‘일요일 일요일밤에’의 1부 코너인 ‘우리 결혼했어요’는 약 70분간 방영되며 한 명의 여성 진행자, 두 명의 남성 진행자 그리고 네 쌍의 연예인 가상 부부가 등장한다. 스튜디오에서 가상 부부생활을 하면서 촬영한 화면을 함께 관람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크쇼 형식을 취하고 있다.

2008년 3월 16일 첫 방영에서는 이회재의 사회로 새롭게 탄생한 연예인 가상 부부 네 쌍의 웨딩마치가 진행되었다. 진행자는 결혼을 선언하고 이러한 선언은 ‘가상’에 ‘진실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두 명의 남성 진행자와 한 명의 여성 진행자, 네 쌍의 연예인 가상 부부는 스튜디오에 앉아 가상 결혼생활을 촬영한 화면을 관람하며 토크를 진행한다. 연예인 가상 부부는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의 요소를 합친 영상을 통해 대중에게 보여짐(être vu)과 동시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voir) 이중적 역할을 담당한다. 다큐드라마의 주인공이자 토크쇼의 출연자이면서 관객이 되는 가상 부부는 스튜디오에서 가상부부의 허구적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 속 연예인의 리얼리티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진행자는 영상에 등장하는 가상 부부의 모습에 허구성을 각인시키면서 동시에 가상 결혼 생활의 감정이 현실과의 영속성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허구와 현실을 혼동시킨다.

진행자는 촬영을 하는 날, 즉 2주에 한 번만 만나는 동료에 불과한 연예인 가상 부부의 현실을 상기시키며 현실과 가상을 매개하는 질문을 던진다.

진행자 : 촬영날이 기다려지진 않으세요?

알렉스 : 제작진이 요새 외로우냐고 물어봐요. 2주에 한번씩 촬영하니깐 2주에 한번씩은 안 외롭다고(3회방송:2008.3.30)

3회방송(2008.3.30)에서 크라운제이가 잠에서 깬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보며 진행자는 “아침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수면을 취합니다.”라고 설명한다. 한 시간 동안 잠을 잔 것으로 하룻밤을 지낸 상황을 연출한다는 진행자의 설명은 화면 속 실재감이 허구적 리얼리티임을 강조한다. 7회방송 시작부분에서 진행자는 방송을 하지 않는 동안 연예인 가상 부부간에 전화 통화나 문자를 하느냐고 묻는다.

진행자 : 저희가 사적으로 개인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커플 솔직히 방송하는 동안 서로 연락한 커플이나 문자도 좋구요. 전화한 커플이 있으면 솔직히 괜찮습니다. 이긴 그냥 솔직히. 상의하지 마세요. 눈 감으세요. (7회 방송:2008.4.27)

네 쌍의 부부 가운데 세 쌍이 방송 이후에도 전화통화를 한다고 손을 들었는데, 이러한 답론은 가상공간의 감정이나 관계가 현실 세계에까지 연장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이처럼 진행자는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토크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연예인 출연자의 현실과 가상 부부의 가상 결혼생활을 뒤섞어버린다. 동시에 화면을 통해 보이는 자이자 동시에 보는 자의 위치를 획득한 가상부부는 가상 세계의 자신과 현실 세계의 자신을 모호함 속에 병치시킨다.

## 2. 일상의 재현을 통한 부부의 유형화

‘우리 결혼했어요’ 1회부터 8회에 등장하는 네 쌍의 연예인 커플은 대형 스타급 연예인은 아니다. 정형돈과 사오리, 앤디와 솔비, 알렉스와 신애, 크라운제이와 서인영은 첫 회에서 부부로 맺어지고 신혼집에서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이 어색함을 극복하고 동반자로서의 체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작진은 각 단계별로 미션을 제시한다. 1회부터 8회까지의 미션은 총 4가지로 ‘신혼집 꾸미기’, ‘함께 운동하기’, ‘김치 담그기’, ‘도시락 만들기’이다.

‘신혼집 꾸미기’에서는 남성의 집에 여성이 들어가는 형태로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즉 결

혼이란 남성의 공간에 여성이 추가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각 과업에 따른 수행 방식은 커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연예인의 사적 공간이 표출되며, 출연자의 태도, 성격, 습관 등이 드러난다.

과업을 수행하면서 네 쌍의 가장 부부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형화된다.

정형돈과 사오리 커플은 '소통의 난항'을 드러낸다. 정형돈은 사오리에 대해 동반자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부부 생활을 영위해 가려고 한다. 신혼집 꾸미기 과업에서 침대 커버를 씌우려하지만 사이즈가 작아 들어가지 않아 정형돈은 가위로 귀퉁이를 자르고 완성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운동하기에서 정형돈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가자는 아내의 요구를 따르기는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과 농구를 하고 아내의 요구를 묵살한다. 이 과정에서 사오리 역시 대화보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는 약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김치담그기 과업에서도 사오리는 외국인이라 못 담근다고 하며 정형돈은 김치는 여자가 담는 법이라고 서로 미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도시락 만들기 과업에서는 정형돈이 혼자 도시락을 싸지만 설거지를 미루면서 다시 사오리와 갈등을 빚는다.

정형돈은 혼자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방적인 지시 혹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가부장적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오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체념하며 희생하는 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간에는 서로간의 의견 조율이나 대화를 통한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오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서툰 외국인이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형돈이 이러한 부분을 배려하는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사오리가 정형돈의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한국 음식을 잘 못 만드는 점에 대해 정형돈은 짜증을 낼뿐 소통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사오리 역시 정형돈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이해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결국 이 커플의 대화는 단절되고 소통은 난항

을 겪게 된다.

앤디와 솔비 커플은 '헌신하는 아내와 착한 남편'의 유형을 보여준다. 솔비는 앤디에게 짐을 정리해 달라고 하며 공주 침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앤디는 이러한 요구에 충실히 따르는 착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며 솔비는 이러한 남편을 위해 요리를 준비한다. 운동하기 과업에서 솔비는 포켓볼을 잘 치지만 못 치는 것처럼 속이고 내기를 걸어 승리하여 앤디로부터 입맞춤을 받는다. 김치 담그기에서는 부부가 함께 김치를 담그며 솔비는 앤디 몰래 보쌈과 술을 준비해 앤디를 기쁘게 한다. 도시락 만들기에서 솔비는 콘서트를 준비하는 앤디와 그의 동료들을 위해 어머니를 불러 김밥을 싸 콘서트 장소로 가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여준다.

앤디와 솔비 커플의 일상은 대부분 솔비의 제안이나 요구로 진행되며 이 때 솔비는 헌신적인 아내의 역할을 수행한다. 솔비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이들 부부가 속한 세상은 결국 남편인 앤디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즉 솔비는 자신이 아닌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이다. 앤디는 남편인 자신이 리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이러한 솔비의 적극성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아내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벌이는 착한 남편의 역할을 수행한다.

알렉스와 신애 커플은 '자상한 남편과 종속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애의 짐을 정리하면서 알렉스는 아기 신발 50켤레 정도를 발견하는데 이를 매개로 알렉스는 신애의 상처에 대해 이해하고 신애를 돌보아주고 배려하는 자상한 모습을 보인다. 둘은 함께 커피를 달고 알렉스는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는데, 이때부터 알렉스는 부부생활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분을 스스로 준비하며 신애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운동하기 과제에서 알렉스는 신애를 운동시키고 지도하는 트레이너로서 위치 지으려고 하며, 김치담그기와 도시락 만들기에서도 남편의 자상함과 주도면밀함을 보여준다.

기념일에 케이크를 준비하고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며 발목을 다친 아내를 위해 발 마사지를 해주는 지극히 자상한 남편 알렉스는 자상함과 로맨틱

한 이벤트를 내세워 아내를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로 가두어둔다. 아내는 남편이 선사하는 이벤트와 각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거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남편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전략하고 만다. 각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알렉스는 계획을 세우고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아내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

크라운제이와 서인영 커플은 '성인적 자아와 유아적 자아 그리고 물질 애호 코드'라는 부부의 유형을 보여준다. 신혼집 꾸미기에서 크라운제이는 백옥 같은 침실을 꾸며 놓았으나 서인영은 밋밋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갖고 온 꽃무늬 커버로 바꾸어 버린다. 운동하기에서 서인영은 운동을 하는 대신 네일숍과 미장원으로 크라운제이를 데리고 가서 염색을 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내인 서인영은 미성숙한 유아적 고집과 행동을 보여주며 크라운제이는 성인적 입장에서 서인영을 감당하거나 달래거나 양보한다. 김치 담그기에서 서인영은 자신의 무관심한 영역을 크라운제이에게 넘기며, 결국 크라운제이의 주도로 김치담기 과업이 수행된다. 도시락 만들기 과업에서 크라운제이는 혼자 도시락을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내의 기대와 취향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만다.

서인영은 유아적 협박과 보챌, 애교로 부부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보여주는 아내의 모습은 일방적이고 즉흥적이며, 크라운제이는 이러한 아내를 포용하고 설득하거나 인내하면서 부모의 위치에서 과업을 수행해 나간다.

한편 크라운제이의 편집증적인 물질에 대한 애착과 서인영의 신상품 애호는 이들 부부의 결혼 생활을 지탱해 나가는 공동의 코드로 자리 잡으면서 위기와 갈등의 순간을 넘기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우리 결혼했어요'는 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난항', '현신하는 아내와 착한 남편', '자상한 남편과 종속되는 아내', '성인적 자아와 유아적 자아 그리고 물질 애호 코드'와 같은 다양한 부부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과업을 통해 각 유형의 연예인 커플들이 실제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랑과 갈

등을 보여줌으로써 결혼에 대한 환상과 현실감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면서 수용자와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 3. 고백의 장치를 통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탈경계화

각 출연자들은 개별 인터뷰를 통한 고백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검은 색 배경에 홀로 남겨진 출연자는 카메라와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를 향해 속마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고백은 오래된 종교적 관행에서 유래된 고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진실의 장치이다. 출연자들의 고백을 통해 대중은 연예인의 사생활과 속마음을 보다 은밀히 들여다보게 된다. 천선영은 이처럼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공개적 고백행위와 그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개인과 사회의 대응방식들은 단순히 상업적인 요인이나 근대인들의 익명성에 기댄 병리적 자아 표출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의 구조화 방식과 자기정체성 구성방식, 나아가 그것에 기초한 상호 작용 형식과 내용 변화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지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14].

출연자들은 고백의 장면에서 '솔직히', '진짜', '정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내면을 드러내는 진실성을 강조한다.

"솔직히 원래는 앤디를 좋아했어요. पार्ट너가 된다고 해서 기대감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키면 어떡하지?" - 솔비(1회 방송:2008.3.16)

"처음 했을 때 첫 번째 뽀뽀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받은 건데 되게 많이 떨렸죠. 솔직히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고개 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차마 못하겠더라구요. 너무 긴장되니까." -솔비(4회 방송:2008.4.6)

"처음에 제가 이기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자한테 뽀뽀 안 받아본지 진짜 5~6년, 진짜 받아보고는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못 받았어요. 진짜 이기려고 했어요." -앤디(4회 방송:2008.4.6)



“진짜 프로그램 하다가 정말 이 프로그램 하다가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정말 정이 들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될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정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알렉스(4회 방송:2008.4.6)

출연자들은 고백의 장치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나 고마운 마음 설렘 등을 표현하며 때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망설이거나 침묵하거나 회피함으로써 보다 더 진실에 근접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사오리양이 미역국도 해 주고 카드도 빼빼뺄만한 글씨로 썼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여웠는데 그걸 표현하려는 제 자신이 너무 쑥스러워요.” 정형돈(2회 방송:2008.3.23)

“처음이었어요. 그 친구를 그렇게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게 처음이었어요. 그 친구 팔이 제 다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올라왔는데 바로 앞에 얼굴이 있으니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알렉스(3회 방송:2008.3.30)

“너무 이기적인? 이기가지? 그런 말 있죠? 그런 거 같고 사오리를 여자로 안 보고요. 그냥 친동생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사오리(4회 방송:2008.4.6)

이종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공적 세팅에서 만들어 내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출연자의 “인간성과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적인 진실성과 유의미성을 포착”한다고 하였다. “유약함,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15].

고백을 통해 출연자들은 대중이 접근하기 힘든 세계에 속한 연예인들의 삶이나 감정이 보통 사람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 감동 등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인 TV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출연자들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는 불분명”해지며[16] 이러한 고백은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 4. 감동을 통한 오락성의 구현

전규찬과 박근서는 텔레비전 오락이 ‘진지함’이라는 요소를 동반하지 않을 때 텔레비전 오락의 경박성이 나타난다고 경고한다. 가벼움의 미학과 더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를 반성하고, 주변상황을 숙고하게 하는 ‘진지함’이 추가될 때 오락은 제대로 된 문화 정치적 의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17]. 단계별로 제거의 과정을 거치면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경쟁적 리얼리티 프로그램과는 달리 ‘우리 결혼했어요’는 일상의 잔잔한 감동과 재미가 가상결혼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오가는 가벼운 언어적 유희와는 달리 가상 연예인 부부들은 영상을 통해 감동을 전달하며 동시에 다소 진지한 오락성을 제공한다.

감정 표현에 서툰 정형돈은 사오리를 위해 천장에 형광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기도 하며 사오리는 서툰 글씨로 남편을 위해 생일카드를 쓰고 미역국을 끓인다. 솔비는 김치 담그는 날 수육과 술을 준비해 남편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앤디는 공연 도중 솔비에게 하트를 만들어 보인다. 알렉스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노래를 불러주며 아내를 감동시키고, 신애의 환한 웃음이나 장난은 알렉스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크라운 제이는 아내를 위해 신상품 구두를 준비하고, 서인영은 처음으로 설거지를 해 남편을 기쁘게 한다.

“갑자기 노래가 끝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감사했고 그런 걸 처음 받아봐서 저도 조금은 놀랐고 감정이 조금 복잡 미묘했는데 감사했지만 되게 순수해 보였고, 그래서 저도 살짝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신애(2회 방송:2008.3.23)

“비 맞고 커피 사러 나간 건 진짜 웬만한 마음 갖고는 힘들 것 같고 되게 감동 받았어요.” -솔비(4회 방송:2008.4.6)

“제가 사이즈를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제 구두만 항상 챙겨 와서 놔두기 바빴지 제 사이즈를 말해준 적이 없는데 구두가 딱 맞는 거예요. 세심한 면이 있고 그 면이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이럴 땐 또 감동을 주는구나.” -서인영(6회 방송:2008.4.20)

물질적인 선물이나 육체적 노력, 따뜻한 말, 노래, 하트를 만들어주는 제스처, 맛있는 음식, 웃음 등 연예인 커플이 만들어내는 감동은 일반인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잔잔한 감동과 닮아있기에 대중적 공감을 얻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생활에서 부딪치는 난관이나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감동을 통해 낭만성을 발현함으로써 극적인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토크에서나 자막 등에서 일반적으로 쇼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말의 경박성이 주는 가벼운 오락성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연예인 커플이 보여주는 결혼생활의 영상에서는 감동을 통한 '진지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얼리티 쇼나 가상 리얼리티 쇼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면서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분석 대상 프로그램인 '우리 결혼했어요'는 가상 부부 생활의 영상과 스튜디오에 등장하는 현실에 존재하는 연예인의 현재성을 병치시킴으로써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해체하고 있었다. 각 부부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 부부의 유형을 보여주며,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일상의 리얼리티를 실현한다. 또한 고백이라는 장치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사적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진실성을 구현하고 있었다. 특히 말의 경박성을 이용한 가벼운 오락성보다는 감동을 도구로 하여 보다 진지하고 극적인 재미를 제공하며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는 조스트가 장르 구분의 요소로 제시한 진실성, 허구성, 오락성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계의 해체와 장르적 모호성은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수용자에게 소구하는 중요한 특성이 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용자

분석도 수반되어야 하였으나 이는 또 다른 분야의 연구와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 과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치밀함이 다소 결여되었으며, 해석이 다소 주관적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텍스트 분석의 보다 객관적인 틀에 관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장르적 실험을 통해 탄생한 가상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보다 창조적이고 공감적인 요소들을 개발하여 시청자에게 다가가기에 바란 다.

## 참고 문헌

- [1] 문주영, “좌충우돌~ 아옹다옹~ 각본 없다, 그래서 재미있다”, 경향닷컴, 2008.07.25.
- [2] 조은별, “PD가 말하는 ‘우리 결혼했어요’의 진실 혹은 거짓”. 노컷뉴스, 2008.07.09.
- [3] 윤고은, ‘너도나도 연예인 리얼리티쇼, 진짜 ‘리얼’ 맞아?’, 연합뉴스, 2008.07.13.
- [4] 박주연,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 한국언론재단, 2005.
- [5] Jost, François, *Introduction à l'analyse de la télévision*, Ellipses édition marketing S.A., 1999.
- [6] 김훈순, 김은정, “한국 멜로영화의 장르연구 : 관습의 반복과 변형”, 한국방송학보, 제14권 제 1호, pp.113-154, 2000.
- [7] 주창윤,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방식과 장르형성”, 한국언론학보, 제48권, 제1호, pp.166-189, 2004.
- [8] Lacey, Nick.: *Narrative and genre Key concepts in media studies*, MacMillan Press Ltd., 2000.
- [9] Baudrillard, Jean.,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 민음사, 2001.
- [10] 홍석경,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현실구성: 현실과 허구의 혼합을 통한 텔레비전의 장르형성에 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16권, 제1호, pp.257-280, 2004.
- [11] Rieffel and Rémy, *Que sont les médias?*

*Pratiques, identités, influences*, Gallimard, 2005.

- [12] 김소민. "현실과 가상의 경계", 한겨레신문, 2008. 04. 30.
- [13] 김미라,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재미 유발 기제에 관한 연구", 방송 연구, 제67호, pp.143-168.
- [14] 천선영, "'공개고백성사'의 시대친밀성과 내밀성의 대중적 생산과 소비에 대한 사회이론적 이해",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0호, pp.37-70, 2008.
- [15] 이종수, *TV리얼리티, 뉴스, 리얼리티 쇼의 현실구성*, 한나래, 2004.
- [16] 필립 아리에스, 조르주 뒤비, 김기림 역, *사생활의 역사*, 새물결, 2006.
- [17] 전규찬, 박근서, *텔레비전 오락의 문화정치학*, 한울 아카데미, 2003.

#### 저자소개

홍 숙 영(Sook-Yeong Hong)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1996년 10월 : 프랑스파리2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 2007년 2월 : 프랑스파리2대학교 언론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영상콘텐츠, 뉴스콘텐츠